

## 제12장 - 금이 가는 소리

처음엔 누구도 그걸 파멸의 시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사람은 큰 재앙을 보기 전까지는 언제나 작은 불편부터 참는다.

빵이 조금 덜 부풀고, 새벽 수로의 물빛이 평소보다 흐리고, 창고에 쌓아둔 소금 자루 한 귀통이가 이유도 없이 눅눅해지는 정도의 일은 다들 입맛만 다시고 넘긴다.

삶이라는 건 원래 그런 작은 어긋남들을 품고 굴러가는 것이고, 바다를 끼고 사는 왕국이라면 더더욱 모든 걸 날씨 탓, 조수 탓, 습기 탓으로 돌리기 쉽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얼굴로만 남아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 목소리를 낮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춘 소문은 대개, 가장 멀리까지 간다.

아침 시장은 여전히 열렸고, 생선의 비늘은 새벽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으며, 수로 가장자리에는 인어와 어인이 뒤섞여 각자의 방식으로 호흡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의 입이 평소보다 더 자주 멈췄다가, 더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니 글썄, 어제 새벽에 우리 집 창문이 지 혼자 열렸  
다니까요.”

빵집 노파가 반죽에 밀가루를 털어 넣으며 혀를 찼다.  
“바람도 없었는데. 내가 귀신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  
런 건 좀 기분이 더럽잖아요.”

맞은편 생선 상인이 코웃음을 쳤다.

“귀신은 무슨, 그냥 창틀이 삭은 거지. 근데… 수로 쪽  
물빛이 이상하긴 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래가 안 비  
쳐. 젠장, 맑은 날인데.”

수로 가까이에 있던 어인이 짐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  
다.

“아래가 안 보이면, 밑에서 위를 보고 있다는 뜻이지.”

그 말에 인간 상인이 얼굴을 찌푸렸다.

“농담도 적당히 하쇼.”

어인은 어깨를 으쓱였다.

“농담 아니야. 물이 제 얼굴을 숨기면, 누군가 다른 얼  
굴을 올리고 있다는 거니까.”

조금 떨어진 얇은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민 인어 하나가,  
둘의 대화를 잠깐 듣더니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말은 짧았고, 끝이 아주 미세하게 길게 늘어졌  
다.

“파도가… 며칠째, 잠을 못 자요.”

빵집 노파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면서도, 손놀림이 잠깐 멈췄다.

다른 쪽에선 어린 어인 하나가 인간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밤에 수로 보지 마. 물이 너를 먼저 보면, 네가 먼저 본 게 아니게 돼.”

인간 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인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꼬리뼈 근처의 잔근육이 아주 작게 움찔했고, 그게 그 종족에겐 불안의 표현이라는 걸 이 왕국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다.

소문은 그렇게, 각자의 말투와 습관과 미신과 감각을 입고 퍼졌다.

“달빛이 수로에 떨어지면 물이 비린내를 바꾼대.”

“왕궁 안에서도 쥐가 죽었다더라.”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말라붙은 거래.”

“조개 문양 있는 데만 이상하대.”

“조개 옆에 둥근 흙집이 있다더라… 췌, 췌.”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건, 소문이 이제 더 이상 시장 바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 소리는 수로를 타고, 항구를 건너, 바다의 냄새와 섞여 왕궁 쪽으로도 올라왔다.

왕궁 안 공기는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기둥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는 여전히 낮고 일정했지만, 그 소리 위에 사람들의 숨죽임이 겹쳐지면 리듬은 금방 깨진다.

회의실 안에는 대신들, 기록관, 경계 마법 담당자, 기사단 쪽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리네는 창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등을 꼳꼳이 세운 채, 손끝은 서류의 가장자리를 아주 가지런히 맞추고 있었다.

너무 가지런해서, 오히려 긴장이 드러났다.

대신 하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이가 제법 든 남자였고, 바다의 왕국에서 오래 행정을 맡아온 사람 특유의 조심성이 목소리에 묻어 있었다.

“공주님, 시장과 항구 쪽에서 떠도는 소문이 단순한 불안 수준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평민들은 원인을 모르니 더 두려워하고,

상인들은 거래를 줄이기 시작했고, 수로 관리 쪽에서도 야간 작업을 꺼린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리네는 고개만 아주 조금 들었다.

“수치는요.”

짧은 한 단어.

대신은 곧바로 서류를 넘겼다.

“오늘 새벽 기준, 소금과 해산물 거래량이 평균보다 칠 퍼센트 가량 줄었습니다.

별것 아닌 수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왕국의 일상이 불안 때문에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뜻이라 가 뵈지 않습니다.”

다른 대신이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는 좀 더 직접적인 성정의 사람이었다. 표현은 공손 했지만, 속에 품은 걱정은 숨기지 못했다.

“문제는 거래가 아니라 민심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왕궁 안쪽까지 달빛이 스몄다’고 말합니다. 바닷가의 미신이라 웃어넘기기엔, 왕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과 맞물려 버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단순한 답이 아니라, 확실한 안심을 원합니다.”

리네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 하나가 서류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다.

기록관이 짧게 입을 열었다.

“소문. 확산.”

“억제. 난항.”

“원인. 달.”

“증거. 충분.”

짧은 단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돌맹이처럼 딱딱하게 울렸다.

경계 마법 담당자가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다.

“결계 오작동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개 문양이 새겨진 구조물 주변에서만 간헐적으로 파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징이 건드려진다면, 왕국의 심리적 중심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제야 리네가 입을 열었다.

“알고 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다.

그러나 날이 서 있었다.

대신 하나가 더 밀어붙였다.

공손했지만,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공주님, 백성은 불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왕국은 오래 평온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리네의 시선이 천천히 그에게 향했다.

“설명은 불안을 통제하지 못할 때 더 큰 공포가 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으나, 선이 더 분명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대신의 말이 이어지기 직전, 리네가 잘랐다.

“내가 판단합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 문장은 명백히 여왕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여왕다움은 평소보다 조금 더 얇았다.

마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의 끝처럼, 너무 잘 버려져 있어 오히려 금 가기 쉬운 상태처럼.

대신들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은 도전이 아니었다.

걱정이었다.

리네는 그 걱정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왕국을 향한 걱정이라는 것도 알았다.

문제는 지금의 자신이 그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왕국이 흔들리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흔들리면 왕국 전체가 기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덮었다.

“백성의 불안은 내가 책임집니다. 소문은 줄이고, 표식 조사와 내부 경계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정했고, 명확했고, 여왕다웠다.

그런데 당신은 그 문장 끝에 숨어 있는 미세한 떨림을 보았다.

리네는 지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홀로 떠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안에서 어떤 결론이 더 단단하게 박혔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내가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

그래야 그녀가 저 표정으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은 다짐이 아니라 거의 강박처럼,

숨쉬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날 이후 당신은 몸을 다루는 방식부터 달라졌다.

훈련의 종류가 바뀐 건 아니었다. 구르고, 막고, 흘리고, 찌르고, 다시 서는 것.

바다의 잔물결 기사단이 늘 하던 훈련이었다. 달라진 건 훈련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몸이었다.

손바닥은 이미 굳은살로 두꺼워져 있었는데,

그 위가 다시 갈라지기 시작했다.

자루를 질 때마다 피부 아래의 살이 미세하게 벌어졌고, 피가 크게 흐르지는 않아도 늘 얇게 배어 나왔다. 무릎은 낮기 전에 다시 까였다.

피딱지가 생기면 다음날 훈련에서 다시 터졌고, 터진 상처 위로 흠과 땀이 말라붙어 검붉은 막이 되었다.

발목은 이미 한 번 부러진 뒤 제대로 쉬지 못해 붓기가 빠지지 않았다. 아침에는 조금 가라앉는 듯해도 훈련이 끝나면 다시 단단하게 부었고, 발등의 핏줄이 부풀어 신발끈을 조일 때마다 뜨겁게 당겼다.

그러나 진짜로 망가지고 있는 건 몸 전체의 균형이었다.

어깨는 항상 올라가 있었고, 턱은 늘 약간 굳어 있었으며, 잠이 얕아지자 눈 밑이 점점 패었다. 밤에 서너 번씩 깬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해가 뜨는 걸 보는 날이 많아졌다.

입술은 자주 갈라졌고, 혀로 피를 훔쳐도 금세 다시 터졌다. 식사는 건너뛰는 날이 늘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먹는 시간이 괴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입에 넣는 순간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휘둘렀으면” 같은 생각이 올라왔다.

그래서 몸은 점점 말라갔다. 뼈 위에 남은 근육은 아직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이 건강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꺾여나가고 남은 형태라는 걸 보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었다.

검술 감독은 한동안 그냥 두고 보았다.

말로는 이미 경고했기 때문이다.

경고를 들었는데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말보다 침묵이 더 무거운 법이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이 발목을 거의 끌다시피 하면서도 끝까지 검을 놓지 않는 걸 보고 그는 결국 직접 걸어 나왔다.

교관이 당신 앞에 섰다.

곧고, 무겁고, 쓸데없는 동작이 없었다.

당신이 검끝을 내리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다.

“망가져가는군.”

그 말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훈련장 전체가 들을 만큼 분명했다.

검술 감독은 당신의 손, 어깨, 눈, 갈라진 입술, 떨리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발끝까지 차례로 훑었다.

“스스로가 칼을 쥐는 게 아니라… 칼이 너의 목을 조르고 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제대로 강해지는 놈은 본적이 없다. 너도,나도, 그 누구도.”

잠시 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으며 그의 벌어진 입에서는 작은 한숨같은 숨결이 내뿜어 진다.

“왜 그러는지 안다. 하지만 그만두고 숨을 쉰라”

그 짧은 인정이 오히려 더 아프게 박혔다.

“그런 식이면 결국 네가 제일 먼저 망가진다. 명심하고 명심해라. 넌 망가지기에는 이르다”

그의 시선이 당신을 바라본다. 그는 한 박자 쉬어가듯 하늘을 바라본다.

“글러먹었군. 쫓.”

혀를 차는 소리가 작게 났다.

비난이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의 혀 차기였다.

당신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면, 숨이 흔들릴 것 같았다.

검술 감독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걸음이 조금 무거웠다.

그나마 당신 곁에 얹게라도 남아 있는 두 단원은,

여전히 자신들 방식대로 당신을 건드렸다.

남자 단원은 늘 말투가 조금 툃툃거렸다.

정이 없는 건 아닌데, 정을 대놓고 드러내는 걸 민망해하는 사람 특유의 투박함이 있었다.

“그러다가 너가 먼저 쓰러지겠다.”

그가 어느 날 당신이 남겨둔 물병을 집어 던지듯 건네며 말했다.

“이게 왜 남냐~ 물도 안 마시고, 진짜.”

그 말은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그의 손은 병뚜껑을 미리 조금 풀어 둔 상태였다. 당신이 손에 힘이 덜 들어가도 바로 열 수 있게.

여성 단원은 반대로 더 조용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늘 한 걸음쯤 거리를 두었으며,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녀의 말은 오래 남았다.

“걱정마, 괜찮아.”

그녀가 무릎 보호대를 주워 당신 앞에 놓으며 말했다.

“공주님도 너가 이려는 거 원치 않을 거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자신을 보듬어 주는 누나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위로하기 위해 다정한 척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괜찮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조용함. 당신은 그 둘에게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에게는 어떤 답도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은 마음 한구석에 쌓였지만, 당신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집착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더 걱정하지 않게. 리네가 더 날카로워지지 않게. 왕궁이 더 흔들리지 않게.

그 모든 이유가 결국 당신 하나를 더 깊이 몰아붙이는 연료가 되었다.

허나 리네는 그런 당신을 볼 때마다 더 예민해졌다.

왕좌에 앉아 대신들의 보고를 들을 때는 끝까지 냉정을 유지했지만, 보고가 길어질수록 손끝이 서류 가장자리를 눌러 하얗게 질렸다. 하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만 빨라도 시선이 먼저 움직였고, 창 밖에서 새가 날아오를 때도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날카로움은 소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짧아지는 방식이었다.

“다음.”

“요점만.”

“그건 됐어.”

문장이 짧아질수록 공기는 차가워졌다.

리네는 여전히 여왕이었고, 그래서 더 단정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사람들은 그 단정함이 흔들림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다.

문제는 리네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데 있었다.

당신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

눈 밑이 짙어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상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자신이 숨긴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인정할수록 리네는 스스로를 밀어붙였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대신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녀는 더 차가워졌고,

당신은 그 차가움을 볼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둘 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거짓을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픔을 숨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고통을 격지만

결과는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배신의 씨앗은 그런 공기 속에서 자란다.

문제의 단원은 이름을 불러도 얼굴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외형도, 강한 말버릇도 없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는 평소엔 그저 어딘가 좀 이상했던 단원 정도로만 여겨졌다. 꼭 필요한 자리에는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농담에 반응할 때도 있었지만, 누구와도 끝까지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

기억에 남을 만큼 강한 인상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는, 흐릿한 잔상 같은 사람.

새벽 조사 임무에서 그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처음엔 모두가 “왜?”부터 생각했다. 그러나 왕궁 안 공기가 이미 금이 가고 있던 상태에서는, 이유보다 결과가 먼저 도착한다.

그가 없던 몇 분 동안 무엇이 놓쳤는지, 무엇이 노출됐는지,

무엇이 달의 왕국에 넘어갔는지—그 가능성들이 먼저 사람들의 얼굴을 질리게 만들었다.

그는 돌아왔고,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거짓말을 더 어색하게 만들었다.

발각은 빨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을뿐.

리네는 공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내부 질서의 문제로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왕국 전체가 불안정한 지금, 단원 하나를 본보기 삼아 드러내는 일은 더 큰 공포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다르게 판단했다.

이런 흔들림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누군가가 이탈하고도 조용히 지나가면, 다음은 더 커질 거라고.

처벌은 결국 기사단 훈련장 아래의 작은 심문실이 아니라, 단원 전원이 볼 수 있는 훈련장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 단원은 무릎 꿇린 채로 끌려나왔다.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입꼬리를 비틀려 했다.

그 비틀림이 오래 가지 못한 건, 당신이 그의 턱을 잡아 정면을 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개 들어.”

당신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더 끔찍했다.

주변 단원들이 반쯤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남자 단원은 평소의 톱툰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얼굴이었고, 여성 단원은 입술을 다문 채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처벌은 물로 시작됐다.

그것은 그냥 바닷물이 아니었다. 오래된 수조에 받아둔, 피비린내와 비린내가 섞인 탁한 물이었다. 생선 비늘과 내장 찌꺼기가 아주 미세하게 떠 있었고, 소금과 썩은 단백질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 물이 양동이째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순간, 단원이 처음으로 짧은 비명을 삼켰다.

물은 얼굴을 덮고, 코와 입으로 파고들었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갑게 흐르며 옷을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다. 비린 물은 턱 끝에서 끊임없이 떨어졌고, 그는 숨을 들이키려다 몇 번이나 사레를 들었다.

다음은 날생선이었다.

갓 손질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오래 두어 비린내가 짙어진 생선 살이 그의 입가에 들이밀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당신이 턱과 뒤통수를 동시에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삼켜.”

그 한마디.

그는 버티려 했다. 입술을 다물고,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당신의 손은 단호했고, 단원 둘이 붙어 팔을 눌렀다.

끝내 입이 벌어졌다.

비린 살점이 혀 위에 억지로 밀려 들어갔다.

그는 구역질을 하였고, 눈물과 콧물이 한꺼번에 터졌으며, 목으로 넘어가는 감촉을 견디지 못해 온몸이 떨렸다. 살점은 식도가 아니라 거의 굴욕 그 자체처럼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주 낮게 욕했다.

“젠장...”

누군가는 시선을 완전히 돌려 버렸다.

누군가는 턱을 굳게 물고 끝까지 보았다.

공포와 혐오와 동정과 분노가 한꺼번에 얽힌 얼굴들.

문제의 단원은 결국 무너졌다.

소리 내어 망가지는 것이 아닌, 구역질과 함께 흐느낌이 섞여 나오는 식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무너졌다.

그런데 그 울음마저도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건 정의의 집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쪽이 이미 너무 멀리 갔다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리네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려 했으나, 어느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이 단원의 얼굴에서 당신의 얼굴로 옮겨 갔다.

당신은 그저 너무 조용했다.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마치 이 처벌이 꼭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 모습이 리네를 아프게 했다.  
이건 그녀가 원한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결국 그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더 잔인했다.

처벌이 끝난 뒤, 훈련장에는 비린내와 물 냄새, 사람들의 숨죽임만 남았다.  
그날 밤 리네는 당신을 따로 불렀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졌다.  
당신은 설명하려 했다.  
더 큰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두려움을 심지 않으면 다음 이탈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리네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네 판단이 아니야.”

짧은 문장.

그 문장이 당신을 베었다.

실망.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배신감.

그 감정이 리네의 눈에 스쳤다 사라졌다.

당신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리네는 아주 조금 더 멀어졌다.

그러나 밤이 오면, 방 안에서 문밖의 당신을 계속 의식  
했다.

실망했는데, 안심이 된다.

멀리하고 싶은데, 없으면 더 불안하다.

그 모순이 그녀를 더 지치게 했다.

왕국의 이상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불편이 아니었  
다.

죽은 쥐 몇 마리가 아니라, 창고 한 칸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말라붙은 사체들.

마법 불발이 아니라, 훈련장 결계가 갑자기 역으로 터  
지며 석벽을 검게 태우고 사람 셋을 넘어뜨린 사고.

분명 어제 잠근 물건이 아침이면 사라지고, 없어야 할 곳에서 보름달 모양의 금속 가루가 묻어 나오는 일. 하인들은 더는 복도에서 혼자 견지 않으려 했고, 어인들은 수로 깊은 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했으며, 인어들조차 밤이면 수면 가까이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왕궁 안쪽에서 비명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 하나였다.

“까아아아악!”

그러나 그 비명 뒤에 이어진 소리들이,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해 주었다.

무언가가 안에서 터지는 소리.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유리가 산산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연달아 터지는 사람 목소리—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살려 달라는 소리, 끝내는 목에서 찢겨 나오는 신음.

당신은 정신을 차렸을 무렵 이미 달려가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발목의 통증도, 갈라진 입술도, 숨의 거침도 전부 사라졌다. 몸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회랑 끝, 작은 시종 대기실과 부속 마법 관리실이 붙어 있는 구역.

문은 이미 반쯤 뜯겨 나가 있었다.

안은... 전장이었다.

벽면의 절반이 안쪽에서부터 찢겨 나가 있었고, 깨진 석재와 유리 조각, 찢어진 천과 목재 파편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마법 장치가 폭주한 흔적처럼 보였지만, 그 형태는 너무 기묘했다. 단순 폭발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안에서 비틀리고, 찢고, 밀어낸 흔적.

하인 하나는 문 가까이에서 쓰러져 있었다. 하복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배 아래쪽이 터져 흘러나오는 내장이 일부 쏟아진 채 손으로 억지로 눌러 막으려 하고 있었다.

“사...살려줘...죽....죽기...싫어....허억....”

손가락 사이로 미끈한 피와 장기가 빠져나왔고, 그는 입을 벌린 채 숨을 들이키려 했지만 비명도 신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끓는 피 소리만 났다.

조금 안쪽, 경계 마법 보조 시종의 팔은 어깨 아래에서 기묘하게 꺾여 잘려 날아갔다.

팔꿈치가 있어야 할 방향과 반대로 휘어 있었고, 흰 뼈 조각이 피부를 밀고 나와 있었으며 그 밑으로 있어야 할 손이 없었고 그저 피 웅덩이만이 자리했다.

“아아악!! 내...내 손!! 내 소오오온!!!! 아아아아!!!”

그는 남은 한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어쨌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몇 번이나 다시 미끄러져 쓰러졌다.

창가 근처에서는 더 어린 하인 하나가 울고 있었다.

울음이라기보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짧은 비명들이 계속 끊겨 나오는 소리였다. 그 아이의 허벅지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깊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피가 바닥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아....? 아....아.... 다리가... 아파..... 왜...?”

그 피 웅덩이 위로 보랏빛이 아주 얇게 떠 있었다. 마치 피마저 달빛에 덮인 것처럼.

방 안 공기에는 뜨거운 피 냄새와 탄 냄새, 그리고 마력의 잔재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사람의 본능을 찢는다. 도망치라고, 눈을 돌리라고, 이걸 봐선 안 된다고 소리치는 종류의 냄새.

그러나 도망칠 수 없었다.

여긴 왕궁이었다.

리네도 뒤이어 도착했다.

그녀는 문턱에서 잠깐 멈췄다.

정말 잠깐.

그 짧은 멈춤 속에서 그녀는 모든 걸 본 것 같았다.

쏟아진 내장.

뒤틀리고 잘려나간 팔다리.

피를 손으로 붙잡고 쓸어담고 있는 하인.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시종.

살려달라 애원하며 꺼져가는 숨을 내뿜는 누군가.

그리고-자기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

리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달을 때만 생기는 종류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다음 순간 바로 잘려 나갔다.

여왕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다.

무너져서는 안된다. -정말....로?

리네의 고개가 빠르게 움직인다.

“살아 있는 사람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의무관 불러! 지금 당장!”

“기록관, 여기 마력 잔재 전부 보존해!”

“경계선 더 넓혀! 이 구역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해!”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눈을 깜빡일 틈도 없이 스스로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리네는 무너진 벽 쪽으로 두 걸음 들어갔다가,

바닥에 쏟아진 피와 살점, 내장들을 보고 아주 잠깐 숨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어린 시종의 얼굴에 멎었다.

그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울음이 거의 소리로 남지 않았다. 공포가 너무 커지면 사람은 오히려 소리를 잃는다.

리네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여왕보다 먼저 한 사람으로서 두려워졌다.

이건 더 이상 소문도, 표식도, 경고도 아니다.

이건 현실이다.

피와 살점의 현실.

그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아주 짧게 드러났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보았다.

그 장면이, 당신의 안에서 마지막 남아 있던 망설임을 태워버렸다.

리네를 지켜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왕궁의 평온은 끝났다.

조개 문양은 더 이상 왕국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름달은, 마침내 피 위에까지 떠올랐다.  
그날 밤 이후, 누구도 Tranquillum mare fati(잔잔한  
운명의 바다)를 예전과 같은 왕국으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예전의 당신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